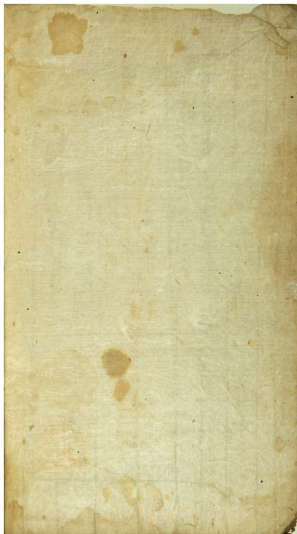


鳥獸魚鱉草竹木

杜詩

卷十三

卷十三



피뵈^도다^다安得萬丈梯為君上上頭^{萬丈인}

님^음爲^하야^야웃^그恐有無母雛飢寒日啾啾

이^이업^스사^기주^리여^치위^워我能割心血飲

啄慰孤愁^내能^히심^동과^피를^써내^야다^시

勞^호心以當竹實^爛然忘外求血以當醴泉

豈徒比清流^不飲^하나^니라[○]심^동○^로비^비

땀^여르^물當^하면^번드^기必^깃것^求호^를닛

고^괴로^어醴^泉는^當하^면엇^대호^文물^은고^호

를^부너^리도[○]所^重王者瑞敢辭微命休^{王者}

裒正為此群盜何淹留
此正甫一思見賢人
也

也 一라 오기 正 오 오 正 하 이 爲 爲 爲
노 나 爲 盜 賊 이 어 는 어 으 리 시 러 오

朱鳳行
此詩是衡州刺史陽濟攝運帥
之職言其討滅玠之亂故云托

朱鳳言其喻
之言云

君不見瀟湘之山衡山高山巔朱鳳聲嗷嗷

그 뒤는 瀟湘 외 래 衡山 이 노 푸 른 드 디 아 나
는 다 뒤 으 텃 블 근 鳳 이 소 리 嗷 嗷 言 矣 다

側身長顧求其曹翹垂口噤心甚勞
우려 기

라 도 라 보 아 으 무 를 求 言 나 늘 개 드 리 하
고 이 비 버 의 오 오 으 을 噤 히 矣 다 言 矣 다

我昔遊錦城結廬錦水邊有竹一頃

餘香不上參天이비제錦城에노라錦水人

杜鵑暮春至哀哀叫호로하늘해다하더라

其間杜鵑暮春에나르러我見常再拜

重是古帝魂蜀人望帝死為杜鵑호나라

生子百鳥巢者鳥不敢噴仍

為饑其子禮若奉至尊은새의기외새기름

鴻鴈及의디몬하고지스로為호야그새기

류물서 몇물 뜻
드시 하노라

杜鵑行

君不見昔日蜀天子化為杜鵑似老鳥

그그의

다아나 하노는 다昔日蜀天子變化寄

巢生子不自啄群鳥至今為嘯雛

너의기세브
터사기틀나

크제덕어기디 묻거든 물어이제나 雖同君

臣有舊禮骨肉滿眼身羈孤

비목君臣의
넷禮이슈이

근근나 魯肉이 누네그 드하 앓고 業工竄伏

深樹裏四月五月偏號呼하늘이 울소매 수어귀

스러늘을바지기로이 其聲哀痛口流하늘이 울소매 수어귀

血所訴何事常區區그소리 슬허심코아배

으스이리완뒤상 爾豈摧殘始發憤羞帶羽니하늘배

翻傷形愚배엇데 推殘아하아미루수어

출帶하야시물뭇그리여 蒼天變化誰料得아하아미루수어

萬事反覆何所無萬事反覆何所無豈憶當

殿群臣趨프른하늘히變化호를부해아리

土

五

개업스리 오鳥事의 두의 흰 후미어 느고대
업스리 오어 누微을當官맛기 든群臣의趨
走하던이물
소량古리로

杜鵑行

古時杜宇稱望帝魂作杜鵑何微細옛時節
杜宇

를望帝라 일고던니 녀사杜鵑
을되되나 조미微細하도다 跳枝官風葉樹

木中搶伴瞥披雌隨雄搶伴은疾飛
은恐回負라

○라오가문다쉬가디에세늘여남피ㅎ毛
나나搶伴瞥披하야암이수흔조트다

衣慘黑貌憔悴衆鳥安肯相尊崇터리슬과
겹고양지

憔悴하리니 고 하리 노 엇 陳形不敢棲華屋短翮

唯願巢深叢의 樓 止 하 를 몰 하 도 소 니 더 르

늘개는 오직 가 픈 나 오 별 穿皮啄朽齧欲禿

舌飢始得食一 蟲 할 나 못 가 프 들 우 여 식 근

호니 심리 주으려 아 호 별 어 誰言養雛不自

哺此語亦是為愚蒙어 기 디 물 하 는 다 하 는

니 오의 말 소이 伍 聲音咽咽如有謂號啼略

與嬰兒同소 리 수 오 위 려 닐 으 어 잇 는 듯 하
니 무루아 더기 아 휘와 다 못근도

大口乾垂血轉迫促似欲上訴於蒼穹

고피드려서그장회왔니나두흐蜀人聞之

皆起立至今數學傳遺風

蜀人사리의듣고迺知變化不可

窮豈思昔日居深宮嬪嬙左右如花紅

變화다음업수를원리로소나냈나래기픈言의

살어든嬪嬙이左右에블근곳그토물어느

義鶻行

陰崖有蒼鷹어득호비레예프養子黑栢巔론어앗는니기돈

白蛇登其巢吞噬恣朝飡한

雄飛遠求食아미그기세을다슴이여디호

雌者鳴辛酸수호는라어리라블求하거力

強不可制黃口無半存禽鳥之雛一口吻이

其父從西위히이세여可히잡뒤도문하니

歸翻身入長烟斯須領健鶻痛憤寄所宣아

비西人녀그로보러와오몬드위터간잇서

리로드러가아니한더마健壯호鶻를더보

리와설우여에알분
斗上挾孤影
嗽
哮來

九天
此言鶴之飛來之狀
斗上挾孤影
嗽
哮來

脩鱗脫遠枝
巨額拆老拳
脩鱗巨

蛇
고老拳은言鶴다
巨額拆老拳
額은言

高空得躑躅
短草辭蜿蜒
躑躅은失勢

折尾能一掉

飽腸已皆穿
飽腸已皆穿

生雖滅衆難死亦垂千年
生雖滅衆難死亦垂千年

斗上挾孤影
嗽
哮來

기르르減나 주기도
物情有報復快意貴

目前萬物의 변디가 포의 잇는 나 빠들快茲

實驚鳥最惡難心炯然이 노眞實로 모딘 새

功成失所在用捨何其

賢言鶻一既殘蛇功을 일우고 잇논 뒤를 일토

近經滴水涓此事樵夫傳

近間에滴水人가 모디나오다 나飄蕭覺

素髮凜凜欲衝儒冠古詩에 怒髮이 上衝冠

土音十七

현어리러리주듯야섯는
人生許與分亦

在顧眄間
言人之教
神이亦貴在眼前之速

義分도在오라보는
聊為義鵲行永激壯士

肝
義鵲行을디어기리壯
士의어를激發히노라

呀鵲行

病鵲早飛俗眼醜
每夜江邊宿衰柳

俗人의눈에더러이네기나방
아다그고그이늘근머드러서가듯다
清

秋落日已側
身過鴈飛鴉錯
回首

하아 모을 기우려다 나느 그려 기와가는
가아 괴예외 오머 리를 도로 혀보 천다 緊

腦雄姿迷所向踈翮稀毛不可壯 緊惡頭

훈양스로 갈바를이 위하노 소니섯 腦와雄壯
권스 태와 드문더러 찬치 문하도 다 強神迷

復皂鵬前俊材早在蒼鷹上 精神을고듣과

귀도라가 문迷失하스니俊傑하 風濤颯
材質은 만프른애 우희잇더니라 風濤颯

寒山陰熊羆欲螫龍蛇深念爾此時有一擲

矢聲濺血非其心 此은외히어드워고어 藝

藏하곡龍蛇 | 기괴들어든녀를이배하번
더더늘오물스랑하노니 소리를일코피를

土書十一

남과다모금 將軍樹勳起安西崑崙嶺虞泉入
오리로다

馬蹄 安西崑崙嶺虞泉은皆在西言니라 將軍一功勳을하여安西에서니라

崑崙嶺과虞泉과을나
라드러볼이니라 白羽曾肉三獲獵敢決

豈不與之齊 白羽는箭也 一라獲獵는即師子 一니食虎射言니라 言將

軍敢決之氣似獲獵也 一라 白羽箭으로
일즉세獲獵의고기를자바어그니敢決言

오은엇데다모금 荆南芮公得將軍亦如角
다아니음리오

鷹下翔雲 荆南人芮公이將軍을어드니位
별가단애구루애는려는矢는

다도惡鳥飛飛啄金屋安得爾曹開其群驅出

六合集鷹分

惡鳥이啄金屋은喻安史一陷京師하디爾營는指角鷹하디

此는甫一欲得王將軍하디寤賊而使君子小人으로分也一라오모단세는라金屋은

의는니엇테네 무를어더그세 무를여러六合애모라내조차集와鷹와를호호려노

見王監兵馬使說近山애有白黑二

鷹鷹니羅者一父取디竟未能得다王

以爲毛骨이有異他鷹鷹니恐臘後春

生生디어鷹飛避暖인勁翮思秋之甚甚라

眇不可見알가請余賦詩二首하디

上卷十二

上卷

雲飛至之盡清秋不惜奇毛恣遠遊

고여玉이산뜻하야물고고을히다인도록
잇나니奇異호짓출앗가키아나호야어리

와노로물故在野只教心力破千人何事網

羅求 로히호뜻다 로히호뜻다 로히호뜻다 로히호뜻다

로求호는나오 호는나오 호는나오 호는나오 호는나오

能耻下韝 能耻下韝 能耻下韝 能耻下韝 能耻下韝

노디라버러에느려 노디라버러에느려 노디라버러에느려 노디라버러에느려

三窟莫深憂 三窟莫深憂 三窟莫深憂 三窟莫深憂 三窟莫深憂

擊이어니와免入三穴호니可 擊이어니와免入三穴호니可 擊이어니와免入三穴호니可 擊이어니와免入三穴호니可

以無憂一니라○鵬鳥는 하늘을 나는 새이니
오로에 도로 허를 다어 나와 뜻기는 새는

공의름아나드려살사기
의사름아나드려살사기

黑鷹黑鷹不省人間有度海疑從北極來人間

어의슈를슬과피쳐몬호리로소니바리를正
간너北極으로빛타몬가리心사노라

翻搏風起紫塞玄冬幾夜宿陽臺紫塞長城

이皆紫塞을시謂之紫塞라○늘개를고려다
르애노라紫塞를간너오니玄冬애엇바몬

陽臺에서 虞羅自各虛施巧春鴈同歸必見

猜猜虞人이그무물수의로제여공虛히工巧
호호를펴노스니보라그려기와宮예가연

만곡시와 처 萬里寒空愁一日金眸玉爪不
로 물보디라

凡材 萬里入 처은 虛空에 오직 홀로 가러로
소니 金 公 忽 是 王 公 忽 也 托 比 象 也

이런 材 質 이
아니 로 다

催宗文樹鷄柵

吾衰劫行邁旅次展崩迫 내 늙거니 문 누를
친 노니 그 바로

愈風傳烏鷄秋卯方漫喫 어므려 슈에 달가
은 비 들과 노라

自春 이런 病 豆 空 獨 居 門 戶 已 傳 言 々
니 公 吳 蘭 軒 外 作 々 로 是 父 兄 也 노라

生成者隨母向百翮 가 只 로 보 러 中 介 兒 也
가 介 也 이 物 不 亦 是 也

니一百이向驅趨制不禁喧呼山腰宅모라

도制禦호문이기다물호리로課奴殺青竹

終日憎赤幘赤幘은雄鷄冠也이라 쟁은

리못도륙블근어리가踏藉盤案翻塞蹊使

之隔이는 들기글글어위여길흙예을사라

가히여공주음牆東有隙地可以樹高柵담

노근木柵을세리로다可히避熱時來歸問兒

所為跡더위를수어時로와셔아織籠曹其

內令入不得擲

籠을 따그안해돈기무리잇
기후야히여드려시러용뵈

여나디몬
게후라

稀間可突過甬距遠汚席

드몬스
이르코

히해디러나면부으리
틈과도로뜻글더러이

我寬螻蟻遭彼

免狐貉厄

言籠柵은無間隙則은螻蟻不遭
鷄之啼이오鷄亦免狐貉이兩害

나라오나는게야위안나물어위키
고려논여은와일회厄을免후리라

應宜

各長幼自此均勅敵

勅敵은開鷄를나르니
라오당당이제여금不

라나와적으니왜맛당히드외야
로브러선비편이곧오드외리라

籠柵念

有修近身見損益

言以柵鷄之事로近譬人
身이면損益之理亦然

모나라 ○ 籠柵修理 호물스 랑 호니 明明領處

分一當剖析 言宗文의 宜領 吾의 廣分也

아니라 ○ 불기 외 절 호물아 라 不昧風雨晨

亂離感憂感 亂離에 내시르

물너는 其流即凡鳥其氣心匪石 心匪石은

晨也 이라 ○ 그 무른 상 냷 세 나 그 氣運倚賴

窮歲晏撥煩去氷釋 窮盡하노니 어스

러운 시르 물 썬 허 염 개 未似尸鄉翁拘留蓋

호물어름 녹듯 하노 다

土寺上

古

千陌 祝雞翁이居尸鄉山下야養雞千餘

홀두펄게흥근
다아니하나라

縛雞行

小奴縛雞向市賣雞被縛惡相喧爭 조고앗
조이들

근의야적제를向하야푸로라가늘들
기설리의오을나버서르을어사호는다 家

中厭雞食蟲蟻不知雞賣還遭烹 들기벌어
들기벌어

지와개야이와어구물아천고돌기풀여
도로하슬모물맛날고돌아디문호라 蟲

雞於人何厚薄吾叱奴人解其縛 벌어지와
돌리해사르

方聽有異失次曉無慙

夔峽이 井甫의 故 鄘 故 鄘 殊方이라

다도 하해와 두루이 다르니 次 第 問俗人情 物일코세배듯그루이 일도다

問俗人情

似充庖爾輩堪

言可充庖厨之餘也이라 風俗은 무루니 介르니 비다

고트니 비어 배에 오면 디 氣交亭育際巫峽

氣交亭育際巫峽

瀾司南

亭育은 造化를 이룬다 氣運이 亭 育스어여섯것스니 巫峽人滿刺

는 아 最南의 處우낫다

歸鷺

不獨避霜雪其如儔侶稀

言 艾 其 儔 侶 亦 稀 矣 不 獨 避 霜 雪 其 如 儔 侶 稀 矣 不 獨 避 霜 雪 其 如 儔 侶 稀 矣 不 獨 避 霜 雪 其 如 儔 侶 稀 矣

그버디드므로 四時無失序 八月自知歸時

애엇데 여節序를일티아니하야 春色豈相訪 衆難

還識機 言來春에又至也 라○보미채엇

도로허소가 故巢尙未毀 會傍主人飛 늘근

萬一에허디아니하면오 로애主人을바라논리라

燕子來 늘어 舟中作 라

湖南為客動 經春燕子銜泥兩度新 湖南에

도외야신다아다보문다내요니 舊入故園

嘗識主如今社日遠看人

네故國에드러일
죽남자흔아더니

이제社日에어리
와사르문보는다可憐處處巢居室何異飄

飄託此身

言甫之託身於此
一與燕之來巢
로無異也

아다사는지의와잇하느나
하아모물브려숨과어는다飄飄暫語船檣

還起去穿花落水益露巾

故간빛대에셔말
하고도로니러가

고졸들위으레더어늘더우
흐으를手巾에저지노라

雙燕

旅食驚雙燕
嚙泥入此堂

나그마든외약
밤어구에두려비

의 흙으러 이 지의 드應同避燥濕且復過炎

涼도 당이 사루이오로 뒤근디避호이 곧 養

子風塵際來時道路長風塵入기 위 학 샷기

다기도 今秋天地在吾亦離殊方言甫去此地

而歸故鄉을亦如燕之歸也라오이그은

件홀병으리 와도리라

鸚鵡

鸚鵡含愁思聰明憶別離鸚鵡시름드외

十七

明
翠
松
渾
短
盡
紅
嘴
護
多

口
未
有
開
籠
日

空
殘
宿
舊
枝

世
人
憐
復
損
何
用
羽
毛
奇

子
規
夜
半
啼
風
雨
江
山
色

峽
裏
雲
安
縣
江
樓
翼
瓦
齊

兩
邊
山
木
合
終
日
子
規
啼

兩
邊
山
木
合
終
日
子
規
啼

남기모닷나니나리모
도록子規 一우나다 眇眇春風見蕭蕭夜

色悽 아나라히 벗은애모리도다 客愁那
나蕭蕭리 밤리치 성늘호도다

聽此故作傍人低 나그내시르에엇데이름
듣가니오부러사됨물브

터나죽호
물짓나다

百舌

百舌來何處重重祗報春 百舌새는어드러
셔오나오여러분

우러오직보知音兼衆語整翮豈多身 소라
물알외나다

서여러가지말스물兼호나니늘게를고花
도문엇테모물호히너키이아나리오

密藏難見枝高聽轉新

고지척척하니갈노
보이어렵고가지노

판니듣지고

過時

如發口

君側

有讒人

百舌

嚙夏止

하니

月令

에

조

後

에

反舌이有

聲

人

在

側

이라

하다

時

辭이디

나드

萬一

데

소리

를

내

면

님

귀

리

하

고

그

릴

사

런

이

잇

는

나

니

라

하

라

니

하

는

다

하

는

어

니

니

하

는

다

하

는

어

니

白鳧行

君不見黃鵠高於五尺童化為白鳧似老翁

此篇은甫一自喻之作이나上句는言少時
고고下句는言衰老하다그덕은보지아

니하는다黃鵠이라자만흔아히의예늘더
니變化하의현을히드와나늘은한아어고

도故畦遺穗已蕩盡天寒歲暮波濤中

기른것이 사기 할 수 없으니 하늘이 鱗介

腥膾素不食終日忍飢西復東

此는比不食 不義之極

多○ 비늘와 당아리가 긴 비취호고기는 본

아西로가락在曹門鷄鷓亦蹭蹬聞道如今

猶避風鷄鷓는海鳥이니避風은比避風은다

○曹國人門에鷄鷓이在蹭蹬은나니

歸鴈二首

萬里衡陽鴈今年又北歸

萬里人衡陽
北歸

短中雙雙瞻客上一一背人飛

雙雙
背人飛

가고났나치가사르물雲裏相呼疾沙邊自宿

稀구름소개서르르로이서리繫書無浪

語愁寂故山薇繫書는用蘇武의鴈足書事

위론속절업은마리업스나故絳외했

欲雪違胡地先花別楚雲누나오고저저는

却過清渭影高起洞

더니그지라와문져楚

庭群

도로 물은 근渭水로 다 나가는 그르메로 소니 누과洞庭에서 나가는 무리로

다塞北春陰暮江南日色曛

邊塞人北조

히도그은南녀권

傷弓流落羽行斷不堪

聞화를 슬허하는 버러 덧는 지쳐여行

歸鴈

聞道今春鴈南歸自廣州

나르거늘드로나

너그로셔도라오물

見花辭漲海避雪到羅

浮

漲海는海名이오羅浮는山名이니皆在南

누를 避하야 羅 是物 關兵氣 何時 免客愁
 浮어 왔더나라 是物 關兵氣 何時 免客愁
 나시 兵氣에 關係하나어 是 年年 霜露 隔不
 나그 내시 르 霜露를 免하려 고 年年 霜露 隔不
 過五湖秋 湖하야 다 霜露를 즈음 처 도 날 서 오
 라

孤鴈

孤鴈不飲啄 飛鳴聲 念群 的로 온 그 려 기 를
 孤鴈 不飲啄 飛鳴聲 念群 的로 온 그 려 기 를

리 誰憐 一片影 相失 萬
 리 誰憐 一片影 相失 萬

重雲 一片人 그 르 매 萬重 인 구 루 에 서 望盡
 重雲 一片人 그 르 매 萬重 인 구 루 에 서 望盡

似猶見哀多如更聞비라오에다업소더오
히러보는듯하고슬픈

野鷗無意緒鳴噪自紛紛소리하하도다시
듣는듯하니다시

野鷗無意緒鳴噪自紛紛가마괴는쁘디
러수우이게어즈럽스나우

歸鴈

春來萬里客亂定幾年歸보리왔는萬里
나오내는亂이곳

腸斷江城鴈高高正北飛거든어는하에
도라가러노

腸斷江城鴈高高正北飛에그려기노괴正하北오
로나라가애애를곳노라

官池春鴈二首

七律上七

三三

自古稻梁多不足네로브至今鷄鶩亂為群稀梁

다해는디온하나이제나르리물
독과하야어즈러이물하얏도다且休悵望

看春水更恐歸飛隔暮雲슬하빈라쉬분무
를보디알라느라

가나첫구루에즈음
출가다시전노라

青春欲盡惡還鄉紫塞寧論尚有霜프른보
이다아

가커늘별리本鄉으로도라가느니
아오하러서리이슈을엇디議論하리오

翅在雲天終不遠力微矧繳絕須防늘개구
름신하

늘해어슈이只太어어디아느리
히이정크나줄사를그잠오로어약느라

舟前小鵝兒

鵝兒黃似酒對酒愛新鵝
미을 對峙기 吐니호

를對峙 引頸嗔舩逼無行亂眼多
키를 소량호 노라 引頸 嗔舩 逼無 行亂 眼多

모곤느리 허비다와다오물의여호니
모곤느리 허비다와다오물의여호니

行列이 俯什누네아즈리우미하도다
行列이 俯什누네아즈리우미하도다

開遭宿雨力小困滄波
를 對峙 引頸 嗔舩 逼無 行亂 眼多

나를 對峙 引頸 嗔舩 逼無 行亂 眼多
나를 對峙 引頸 嗔舩 逼無 行亂 眼多

困々 則도다 容散層城暮狐狸奈若何
困々 則도다 容散層城暮狐狸奈若何

層層인城人나조히여
層層인城人나조히여

得房公池鵝
房公池鵝 房公池鵝 房公池鵝
房公池鵝 房公池鵝 房公池鵝

五詩十二 高漢州刺史

예티리호야류를 看雲莫悵望失水任呼號
 모로애야도다 看雲莫悵望失水任呼號
 구루물보고슬허비라 돌말라 물결 六翮會
 일흔이블려우로몬 任意로호호다 六翮會
 經翦孤飛率未高 意는까지치일즉부
 且無鷹隼慮留滯莫辭勞 意를
 호기업스란티어드러이
 슈디 又 보문마디말라

花鴨

花鴨無泥滓塔前每緩行 意를
 每常날회 羽毛知獨立黑白太分明 獨

羽每常날회 羽毛知獨立黑白太分明 獨
 羽每常날회 羽毛知獨立黑白太分明 獨

牙雪暗還須落風生一任飄누나어듬게오

애라하여로고만고로하하하중군幾群滄海

上清影日蕭蕭엇무리滄海우희문은그

獸古詩八首律詩七首

遣興二首

天用莫如龍有時繫扶桑하늘쓰는거슨龍

문扶桑어이일지기잇니라鬪海徒湧神人身更長어

를늘리이야슈어바르리호갓북괴엇性命

苟不存英雄徒自強 苟不存은는의게자과
실시라○性命곳진실

로 두디물호연英雄도호잇呑聲勿復遺真

스식으로세워들부나나라라다시나루디말라
宰意茫茫하소리를승이고라호야모를거시

라

地用莫如馬無良復誰記 件했쓰이문안근
호거시업진아는

도리아니호면佐此日千里鳴追風可君意

이어나래千里를가우하호도輕君者渥洼種

態與駑駘異 漢元狩三年馬生渥洼水中
나라○그디는渥洼잇베를보

此亦... 不難... 閭道... 遠有能事...
 此... 君... 子... 高... 達... 不... 可... 能... 以... 此...

沙苑行

君不見左輔白沙如白水繚以周墻百餘里

此龍媒... 龍媒... 是渥洼種汗血... 稱獻於...
 龍媒... 是渥洼種汗血... 稱獻於...

中駉牝三千匹豐草青青寒不死

馬一七尺曰駉一尺

苑中中駉牝三千匹이로소니도한食

之豪健西域無每歲攻駒冠邊鄙

에도남도소니히다다질드론이王有虎臣

司苑門入門天既皆雲屯

남두거인虎臣苑人門은마

가라인니門의드러보니하或馬霜一

骨獨當御春秋二時歸至尊

驕驕人고氣骨이호로니금

두물當호야봉과호은至尊內外馬盈億

伏櫪在垆空大存 此言內外馬皆不如

數 億에 차긴 아는 어리하여 逸群絕

足信殊傑侷儻權奇難具論 侷儻은 不羈負

行也 라 ○ 是로 起 逸 言야 絶 辛 言바 라 전

累纍墟阜歲奔突徃徃坡陀

縱超越 越는 即堆字 言 突 中 之 陵 阜 高

平處 는 可以 縱 馬 之 越 也 一 라 ○ 나 又 是

放縱 하 ㅎ, ㅎ 다 角壯翻同麋鹿遊浮深簸

蕩龍窟

使壯호물등토이도로하여사스리
노롬파마드나기핀드리명付垂

龍이공글泉出巨魚長比人丹砂作尾黃金

해리낏다鱗砂르러셔나느큰고기리사롬드니丹
르로르러리랑공오黃金드니비느리로다

豈知異物同精氣雖未成龍亦有神須漢云
其浴之

時에感龍精氣호야往往에與龍交也이라
다로物이로다精氣는근혼고돌어는알

리오비루龍이드외다문호
아도호神壽호이잇도다

瘦馬行

東郊瘦馬使我傷骨骼
碕兀如堵墻東북의
헛여원

모리 날로 힘여 슬게 하나니
絆之欲動轉

歌側此豈有意仍騰驤
다가장기우러엇

하나어엇대돈고적
細看六印帶官字衆道

三軍遺路傍
나官可字를帶앗니모다

날우뒤三軍이
皮靴剝落雜泥滓毛暗

蕭條連雪霜
가치문라든드러흔이엇고

엇도中去歲奔波逐餘寇
驂騑不慣不得將

니견히계最결듯다시
是盜賊을逐查지

의驂騑馬
니속지아니하야시
려곰가저

土寺

卷

가디문호 士卒多騎內厩馬惆悵恐是病乘

黃 乘黃은神馬名이라○士卒이內厩에서

노라 當時塵塊誤一蹶委棄非汝能周防

기혹우적디나돈듯하던거시외오호변잡

見人慘淡若哀訴失主錯莫無晶光 보시름물

天寒遠放鴈 일고어그르치비치업도다

為伴日暮不收鳥啄瘡 노호하늘허치고리머리

誰家且 호앗도소나나리저물어늘거두디

不測不모 노平니 그르에 롬도 라 보고 고隅目
驕慢히 우러 제榮寵호 모矜誇호 다

靑熒夾鏡懸肉駿礮礮連錢動肉駿은肉이
突起호야礮

礮然也 一 라連錢은馬毛丈 一 如錢形而連
也 一 라 〇 모는 누니 빛나기 우루를 배드맛

호는 호고肉駿 一 어홀
오니 은도니 위맛도다朝來少試華軒下未

覺千金滿高價아차미
저니로니千金 一 노은바다

赤汗微生白雪毛銀鞍却覆

香羅帕불근
니銀가르아 一 호호려리에겨기나

是帕를 두卿家舊物公能取天廐真龍此其

잇도다

亞甫公變而有之公卿의物賜馬李

眞實人龍畫洗須眞實人龍

騰涇渭深夕趨可刷幽并夜나灑灑水渭

水人기吾聞州并州人

良驥老始成此馬數年人更驚나馬는

豈有四蹄거

疾於鳥不與八駿俱先鳴와巴리沙리

寺俗造次나

寺俗造次가

那得致雲霧晦冥方降精月精이降而生馬

은아나한소이에엇데시러금닐위리오雲霧아아듣기근박중호로精氣느리느니라

近聞下詔喧都邑肯使麒麟地上行近間에

詔書아아러都邑에서수오느리엇데麒麟오로하아地上海하리오

高都護驄馬行

安西都護胡青驄聲價款然來向東言驄馬本出

於西호야東來長安也아라。安西都護의耳호는聽馬아소리다빛때문드시오물東

호로向中此馬臨陣久無敵與人一心成大功

이 무리 戰陣을 臨하야 오래 몸오라 업스니
사름과 中只호미 이 도외야 큰 功을 일우

도 功成惠養隨所致 飄飄遠自流沙至 功을 일우

니 飄飄히 어리 流沙로 브러 오도 다 雄姿未

受伏櫪恩猛氣猶思戰場利 雄壯호양 조는

은 恩惠를 드디 아니 호리로 소니 위 온氣運

可腕促蹄高如踏鐵交河幾蹴層氷裂 氷裂기

르고 구비 노파의 를 品는 듯 하니 交河에 댓

五色散作雲滿身萬里方看汗流血 血짓다 솟가

土詩一

호려구루물기어모애고독하니萬里가
애외야호로대문피홀류물보리르다 長

安壯兒不敢騎走過掣電傾城知長安옛健

도구덕여두디문속기을어모다아개를
디나드로물城中속기을어모다아개를

青絲絡頭為君老何由却出橫門道橫音은

橫門은長安城北門이라言馬才는在於戰
陣호니不若出橫門호야以致功也라

프른살로어리물리야그되를為호야서늘
느니어느안의로도로橫門人길흐르나가

오리

李鄠縣丈人胡馬行

丈人駿馬名胡騮前年避胡過金牛迴鞭却

走見天子朝飲漢水暮雷崩金牛는蜀地名

駿馬는일후미되騮馬는前年에되를避

호야金牛를다나가처를돌아도로돌아天

子를와보오나야태미漢水自於胡騮奇

를어기고나조히靈州오다라

絶代乘出千人萬人愛되騮馬의奇異호이

矜誇호되다나기든千人萬一聞說盡惡難

人이스랑호호나라호호다

材轉益愁向驚駘車惡難材는如劉備의的

劉表之追之類이라言聞胡騮之材고自

傷所乘이皆驚駘也이라○이려은可救言

七言五七

三

노材質을 다니르니늘호변듣고더
頭上銳

耳批秋竹脚下高蹄削寒玉
어리우잇논가

를어한듯고허잇아켓노존
始知神龍別有

種不比俗馬空多肉
神龍은別히비이호

다아나호니라
洛陽大道時再清累日喜

得俱東行
時再清은謂己收復東京也
다시물

鳳臆龍鬚未易識
鳳의가슴마르며龍의鬚

側身注目長風生
기근호날수이아라보디

문하리 로소 나 모 문 기 유 려 누
늘 쌀 아 보 나 고 나 르 미 나 닷 다

惜別行送劉僕射判官

聞道南行市駿馬不限匹數軍中須南行 그

馬를 사 누 다 나 르 거 늘 드 로 니 匹 數 를 그 襄

지 아 나 하 야 軍 中 에 半 리 라 須 求 矣 矣 中 襄

陽幕府天下異主將儉省憂艱虞主將 正 郎 梁 公 이 라

○襄陽人幕府一天下矣 다 르 나 矣 吾 將 帥

儉省言야半라야려은이를사류야矣야

祗収壯健勝鐵甲豈因格闘求龍駒오 직 木

의 甲 이 가 리 를 잇 디 위 엿 희 사 호 문 而 今 西

田 言 야 仲 龍 의 矣 이 를 求 호 리 오

北自反胡騏驎蕩盡一死無及空口北

騏驎이 다 업스니一龍媒真種在帝都子孫未

落西南隅龍媒는 良馬라龍媒引真寶

南人모라日向非戎事備征伐君肯辛苦

越江湖萬一兵戎人이라辛苦로이江湖

江湖凡馬多顛顛衣冠往往乘蹇驢江

梁公富梁公富

貴於身踈號令明白人安居梁公은 富貴를

조와謀略은바라_고杜陵老翁秋繫船扶病相

識長沙驛杜陵에서늘은한아비_가은히비를

驛에와_라強梳白髮提胡盧手兼菊花路傍

摘胡盧는酒器라_고고도_고과_고한어리_를빛_고

兼_고九州兵革浩茫茫三歎聚散臨重陽_詩

고_고은_고히_고兵_革이_해아_고라_고나_고모_고다_고이_고사_고여

라當杯對客忍涕淚不覺老夫神內傷_{老夫}

一_라고酒杯를當_고고_고는_고對_고야_고詩_고고_고를_고초_고모_고니_고늘_고근_고노_고미_고고_고이_고안_고로_고술_고호_고고

누미아디
몬하누다

秦州雜詩一首

南使宜天馬由來萬匹強南使는 土地名이니 宜牧馬監也

此篇은 專賦 天馬 詩이니 南使 亦 浮雲 天馬 由來 萬匹 亦 南使 亦 浮雲

連陣沒秋草徧山長連 陣 沒 秋 草 徧 山 長 連 陣 沒 秋 草 徧 山 長

다가 잇 聞說真龍種仍殘老驕驩真 龍 種 仍 殘 老 驕 驩 真 龍 種 仍 殘 老 驕 驩

근 驕 驩 이 衰 殘 矣 矣 矣 矣 哀鳴思戰鬪向立

向蒼蒼向 蒼 蒼 向 蒼 蒼 向 蒼 蒼 向 蒼 蒼

玉腕騮

江陵節度使
衛公馬小

聞說荆南馬高書玉腕騮

日구기늘드르니
新南人호로高書

의玉腕騮
라호는다

頓驂飄赤汗踟躕顧長楸

驂馬
에늘

러워니블근하이但리는니모물구하호
과쉬고래나호서리예하도라호는다胡

虜三年入乾坤一戰收

되해하를드려근외
다하호라하호

호번牛
앗드다

擧鞭如有問欲律留池遊

律地호
見前註

호니言衛公의乘此馬호야必來建康家
나라호처음호萬호무로미이시연營池

이호로물얼고
취호리호다

房兵曹胡馬

胡馬大宛名 鋒稜瘦骨成

되므로 큰 대宛나라
일흥난기시니갈

늘모고튼이권

竹批雙耳峻 風入四蹄輕

바
바

한듯호두귀놈고비루미드릿
호듯호네바리가비압도다

所向無空闊

真堪託死生

알피뵈엇노던업슬시니이런
이노가논던문득다드라갈시

호노무로틀터면死空을免호리라호논아리
라호向호야가논바에뵈여이권재업스니

真實로사리미死生
물브령작호도다

驍騰有如此 萬里可橫

行 호소소이이그도이잇스니
萬里에이로빛기너리로다

病

乘爾亦已久天寒關塞涼

在秦州作이라○

오라니하늘하참고
關塞기존하하로다

塵中老盡力歲晚病傷

心드를소대
나歲晚에病홀서
후도록허을다
오물슬노라

毛骨豈

殊衆馴良猶至今

다러리와예아엇태오도
리리과예아엇태오도
오갈드리호호

오히려기
니로도다

物微意不淺感動一沉吟

고맛거시나
아호빈기과기
부물위오노라

感傷
하

麋

麋音凡니大麋也

라

永與清溪別象將玉饌俱다기리물근시네과

다가至근 宜차 賢반 無才逐仙隱不敢恨가 庖

廚九 宰隱 翁이 典白 燒로 同隱 處라 仙

人을 조차 隱居 홀지 積임 스니 구터 芥브

디아 卑드 로문 누우 亂世輕全物微聲及禍樞

宜 聞鳴 聲而 獵取 也라 〇아 츠러 운세 〇아

物은 〇문 과두 〇문 〇가 〇비 〇아 〇비 〇기 〇니 〇저 〇고 〇맛

소리 禍樞 衣冠兼盜賊饕餮食財 用斯須食財

오饕 餮은 貪食 〇라 〇衣 冠고 盜賊 〇을 〇食 財

야食 〇니 饕餮 〇문 〇저 〇근 〇터 〇데 〇비 〇고 〇는 〇다

猿

五十七

裊裊啼虛壁蕭蕭掛冷枝數裊與娟娟同聲長之良

卜라○裊裊의 壁石壁에 掛을 오 蕭蕭人

不免隱見爾如知言猶隱茂林의 如知隱

문사구오免티문하거늘수부여 慣習元從

衆全生玆用奇의수거본뒤 萬무를 奏고 萬

前林騰奔及父子莫相離라 每常이 處

아리라才도이치르

從人覓小胡孫許寄

人說南州路山猿樹樹懸사그미닐오더南州스갈헤외했나

비나모야다도 舉家聞名駭為寄小如拳孫

오猿類이니小者為貴하나라오저비다를
고놀라노못하느니라저고이주익고등니를

為京야브頽晒愁胡面初調見馬鞭시름하

터보네라頽晒愁胡面初調見馬鞭노되노

고도물이리웃노니취임질許求聰慧者童

드루도물온채물외글다니라許求聰慧者童

稚捧應顛슬가오닐求호물許하느니아히

다

蟲律詩三首

促織

促織甚微細哀音何動人아희 쌍이 흥하 쵸고 기시로 뒤늘

昏 소 리 노 조 모 사 草 根 吟 不 穩 牀 下 夜 相 親

平 牀 十 래 바 위 시 르 親 迤 히 오 나 다 久 客 得

無 淚 故 妻 難 及 晨 리 옴 스 리 아 냇 거 지 분 세

悲 絲 與 惡 管 感 激 異 天 真 管 絲

悲 人 으 로 不 同 也 一 라 〇 슬 폰

感 人 으 로 不 同 也 一 라 〇 슬 폰

感 人 으 로 不 同 也 一 라 〇 슬 폰

熒火

幸因腐草出敢近大陽飛후히시근 프글은

이깃비체아未足臨書卷時能點客衣臨書

用車梳의囊螢照書事하다○是히書卷간

라았隨風滿幔小帶兩傍林微帳에즈음처

적고비로되차수프十月清霜重飄零何處

歸十月에몬근시리하거를바라微微호도다

見熒火

巫山秋夜螢火飛簾踈巧入坐人衣 巫山人

巧히 드려나사나바리드문뒤로공 忽驚屋裏

琴書冷復亂簷前星宿稀 집안헛기문고다

은듯놀라고저짐기속알피이 却繞井欄添

箇箇偶經花藥弄輝輝 베도로취우를欄干애

고偶然하고졸디나가 滄江白髮愁看綠

歲如今歸未歸 滄江애와셔헛어리애시름

배도라갈가

魚律詩二首

黃魚

日見巴東峽黃魚出浪新
을 보나다 바東人峽

脂膏兼飼犬長大不容身
은言其

多也
라長大者數百斤이라기

筒簫相沿久風雷肯為神
筒簫

魚器也
라○筒簫○로자보물시르治囊

泥沙卷涎沫回首恠龍鱗
후과물엇서

아
리

구밀잇너니 어리클도라쉬龍
이 비르를惟異히너기노라

白小

白小群分命天然二寸魚 白小 | 무리 무구수

天然 호두寸만 細微露水族風俗當園蔬 當

去聲 이라 細微 호두寸만 露水族 물니 風俗 바닷물 當園蔬 바닷물 入

肆銀花亂傾箱雪片處 고지어즈리운듯고

箱子 를기 生成猶拾仰盡取義何

如나 쉬이노거 義에 엇더 亨리오

分類杜工部詩卷之十七

花古詩三首 雜詩十三首

數庭前甘菊花

溪雨甘菊移時晚
青蕊直陽不堪摘

溪雨故是開花亦過
不日不日不日不日

不日不日不日不日
不日不日不日不日

不日不日不日不日
不日不日不日不日

不日不日不日不日
不日不日不日不日

不日不日不日不日
不日不日不日不日

白小

山一郡分命夫然二十餘日

德遠水族頭俗言國語

以世其

成指

成指

成指

成指

野外多衆芳來擷細瑣外中堂

細瑣一指外衆芳也

○은과과위맛기여러곳다온거시할
시혹더근기슬기야中堂에올오라

念茲

空長大枝葉結根失所纏風霜
가이거시할맛

닐은오크물스랑호느니불취기조이處
所를닐은크물과서리왜일헛도다

江頭五詠

二首見鳥門

丁香

丁香體柔弱亂結枝猶墊

墊도都舍反也
니

이뜻드미보두라오니이즈리이여
르이뒤작가지오히려색헛도다
細葉帶

枝條剩

剩은有餘也 | 라 ○ 제기아 모로 매
늦비지도 하니 하면 속절없이 가지

니 흔히 하거 紛紛桃李枝處處總能移如何貴

此重却怕有人知

亦如隱逸者人之知也 | 니 라 ○

이즈러운桃李人가지를 곧 아다다 능히 옮
거시며 능히 잊어 버려서 이重호물 옮기거

리오 지도도 구려서
알리이 실가 깃늦다

梔子

梔子比衆木人間誠未多

梔子를 물남과가
줄비면人間에眞

實로 하디 아 於身色有用與道氣傷和梔子
는 染

潛句引風妬紅花却倒吹그르에 노 프른 으

吹花困懶旁舟그르에 노 프른 으

擘水光風力俱相怯怯은懼也

赤憎輕薄遮人懷赤憎輕薄遮人懷

珍重分明不來折赤僧은猶生僧이니方言也

飛蓬半欲高縈沙惹草細於毛飛蓬半欲高縈沙惹草細於毛

飛蓬半欲高縈沙惹草細於毛飛蓬半欲高縈沙惹草細於毛

飛蓬半欲高縈沙惹草細於毛飛蓬半欲高縈沙惹草細於毛

蜜蜂胡蝶生情恹偷眼蜻蜓避伯勞

伯勞는

惡鳥故로蜻蛉이避其害也이라○蜂벌와

胡蝶은즐거우니들네이늘일버이보노곤

和裴迪登蜀州東亭送客逢

早梅相憶見寄

東閣官梅動詩興還如何遜在揚州

何遜이

早梅詩云니라○東閣樓閣吹子矣梅花一

글자를興을위우니도로하何遜이揚州人
江天此時對雪遙相憶送客逢春可自由

한 후에 하도다 絶知春意早 最柰客愁何 그 장 못 보든

아노니 안되구나 그 내 雪樹元同色 江風亦自

波는 갯는 나모와 본더 호비 처로 소나 故

園不可見 巫岫鬱嵯峨 故園은 長安杜陵

보더 못 호리 노니 巫山스
뜻부리 鬱然히 높도다

早花

西京安穩未不見一人來 廣德三年에 吐蕃

宗이 幸陝言시어라 西京은 편안함이 臘

吐蕃 五

月巴江曲山花已自開

巴江은 巴江의 入구의 巴江에 對하고 지 亨의 貞로 變

中盈盈當雪杏豔豔待春梅

盈盈은 天女의 姿라 ○ 麗貞이라 ○

고오니는 盈으로 기 屯 우로 梅花 1로 다 直苦

風塵暗誰憂客髮催 風塵은 指兵亂也 1라

若로 이니 기 노니 나고 이 구 眞

花底

紫萼扶千藥黃鸝頰照萬花

扶은 千고 조는 藥을 扶고 누

忽疑行暮雨何事入朝霞

此正言如神女一行雨於暮而又入朝霞之中
 中어니皆羨花色之艷也이라○나되미물
 테고가큰疑心하다나으矣恐是潘安縣
 일로다杏實霞애드릿々니오
 堪留衛玠車潘安仁一為河陽縣令하야植
 桃李花하다衛玠一乘羊車入
 市어는見者一以為玉人이라하니라○이
 潘安와고을한가전노니衛玠설귀를어물
 웁주하深知好顏色莫作委泥沙人비치도
 호물기과
 아노니泥沙애반리여쇼
 물드와디야물디어다쇼

江畔獨步尋花七絕句

江上被花惱不徹無處告許只顛狂
고름우
 회고지

卷之十一

六

고노요몬마리야니홍을니여告并喜
件히업시오직업드러미천뜻호라
定覓

南隣發酒伴經旬出飲獨空惝
斯蘇은吾酒

徒이라○南의이우젼술스랑
라가어터연호리니나드루나
가셔어구니

호오아平惝
이뵈엇도다

稠花亂藥裏江濱行步歌危實怕春
한곳과

운丑지고름고운惝々니거려도노물기
우려아려이호은眞實로모이갈가적해니

라詩酒尚堪驅使在未須料理白頭人
言雖

나尚可以當詩酒之役也
白頭人은甫

白頭人은甫

히려이귀리로소니구탁여어라선사
뒤어라하야헤아리다아를다나라

江深竹靜兩三家多事紅花映白花

寂靜두어지벽어즈러은블報答春光知

有處應須羨酒送生涯수물어가인생보내

이리라○북빛가물하여호문아노니당당
이모로매도호술로人生은보개물디로다

東望少城花滿烟百花高樓更可憐少城은

고다百花樓는百花潭上之樓라○東북
그로少城을닐라오나고지니여고도하얏

나니온가짓곳은노문誰能載酒開金盞嘆
樓는任어루듯오도다

土寺人

七

取佳人舞繡筵

취佳人(취녀) 수문(수문) 시(시) 리(리) 소(소) 호(호) 문(문) 여(여) 리(리) 고(고) 문(문) 사(사) 리(리) 문(문) 불(불) 리(리) 다(다) 가(가) 繡(수)

질(질) 호(호) 듯(듯) 기(기) 춤(춤) 초(초) 개(개) 호(호) 려(려) 뇨(뇨)

黃師塔前江水東春光嬾困倚微風

黃(황) 師(사) 塔(탑) 前(전) 江(강) 水(수) 東(동) 春(춘) 光(광) 嬾(람) 困(곤) 倚(의) 微(미) 風(풍)

롬(롬) 東(동) 杼(주) 前(전) 吹(불어) 비(비) 지(지) 개(개) 을(을) 어(어) 잇(잇) 비(비) 微(미) 風(풍) 에(에) 지(지) 엇(엇) 도(도) 다(다)

桃花一簇開無主

可愛深紅愛淺紅

可(가) 愛(애) 深(심) 紅(홍) 愛(애) 淺(선) 紅(홍) 스(스) 니(니) 기(기) 피(피) 불(불) 그(그) 니(니) 도(도) 可(가) 하(하) 하(하)

스(스) 램(람) 호(호) 오(오) 며(며) 여(여) 러(러) 불(불) 그(그) 니(니) 도(도) 스(스) 램(람) 흥(흥) 도(도) 다(다)

黃四娘家花滿蹊千朵萬朵壓枝低

黃(황) 四(사) 娘(녀) 家(가) 花(화) 滿(만) 蹊(기) 千(천) 朵(도) 萬(만) 朵(도) 壓(압) 枝(지) 低(저)

고(고) 지(지) 끈(끈) 허(허) 고(고) 도(도) 호(호) 앳(앳) 누(누) 니(니) 즈(즈) 문(문) 들(들) 줄(줄) 와(와) 一(일) 留(유) 萬(만) 朵(도) 구(구) 리(리) 가(가) 지(지) 를(를) 지(지) 즐(즐) 위(위) 는(는) 주(주) 호(호) 렷(릿) 도(도) 다(다)

連戲蝶時時舞自在嬌鶯恰恰啼미르리서
노노나리

는時時에춤치고自在호아릿
다온곳고리는恰恰히우돏다

不是愛花即欲死只恐花盡老相催노녀모
노노

사랑호앗마리라。이고즐사랑호야셔곧
죽고져호미아나라고지업스면늘구미서

르봐알가오 繁枝容易紛紛落嫩葉商量細

직저히나라 細開한가지노쉬이어즈려이디고보드라
온곳부리는히아려고노리프돏다

草古詩一首 律詩二首

除草

上詩六

草有害於人曾何生阻脩

言草之毒者一不
必生於遠地也

라○푸리사르미비
나니엇리일즉먼뒤가나리오

其毒甚蜂

蠶其多彌道周

그모디로모쓰는비리라와
그하름기리구리예기

도하엿 清晨步前林江色未散憂

물고서배
압수프라

건너셔고름비제시 芒刺在我眼焉能待高

르를흔디물호라 秋言愈於除去不待秋日之枯萎

霜雪一露凝蕙葉亦難留이논
고온

오면이우물주물나루나라○허리와눈과
흔번저저일의연蕙草入泥도도어므러쇼

이 어러 **荷鋤先童稚** 日入仍討求 討求是求

가 하월시라 호미에 어러 하루 몬져 **轉致水**

中央豈無雙釣舟 言釣舟로載而乘水中也

게 호니 잇테 두 고 가 **煩根易滋蔓敢使依舊**

丘 이 노 모 로 에 으 레 **自茲藩籬曠更覺松竹幽**

여 벧 두 들 클 브 **自茲藩籬曠更覺松竹幽**

브 티 문 하 환 하 나 드 솔 와 **交夷不可闕疾惡**

信如讎 뵈 어 브 료 은 闕 티 문 호 니 시 니 오 딘

라

庭草

楚草經寒碧庭春入眼濃

楚人呼此草為
楚草

舊低收葉舉新掩捲牙重

言

舊低收葉之葉也
舉新掩捲之葉也
卷而生也

楚草經寒而舉起也
楚草經寒而捲也

步履宜輕過

開筵得屢供

供筵也
筵色也
供筵也

楚草經寒而開筵也
楚草經寒而得屢供也

看花隨節序不敢強為

容容은容飾也 | 라。 又 모 율 時 節 들 조 부
容 고 구 트 이 고 툼 파 仔 무 몰 아 니 하 노 라

薰 護

摧 析 不 自 守 秋 風 吹 若 何 不 自 守 노 이 러 누
이 트 리 제 모 온 호 하 디 문 호 노 소 니 暫 時 花

戴 雪 幾 處 葉 沉 波 아 니 한 빨 고 지 누 노 옛 노
레 등 것 體 弱 春 苗 早 薰 長 夜 露 多 矣 드 이 바

不 自 守 이 르 고 피 기 기 江 湖 後 採 落 亦 恐 歲
니 밧 이 스 리 하 도 다

蹉 跎 이 거 시 리 되 며 리 달 처 가 니 時 節 이 거
그 리 촌 가 하 니 라 ○ 그 르 데 서 이 이 여

上 卷 七

明
此
律
詩
三
首

竹
律
詩
三
首

嚴鄭公宅同詠竹得香字

綠竹半含籜新稍纔出牆籜竹皮也。正
是半出也。

侵書帙晚陰過酒色

鑄涼人什不宜宜矢中兩

洗娟娟淨風吹細細香娟娟也。斗。

但令無翦伐會見拂雲長細

오직히여 품버히디 마라 모로에
구루 들릴이 저기로 묻불다 로다

從韋二明府續處覓綿竹三數叢

華軒藹藹他年到綿竹亭亭出縣高華軒은指明府

之軒이라綿竹은竹名이라○빛난軒檻이萬萬하디녀느하여너르러가니綿竹이노

파다 높더라江上舍前無此物幸分蒼翠拂

波濤江上舍는南의浣花溪上舍也이라○

론거슬노화보내야
물겨를별일게하라

苦竹 竹名이라

土寺

青冥亦自守軟弱強扶持

青冥은指言山也
中○青冥에依列

모론가첫도소니보드라와味苦夏蟲避叢
고돌파서르더위자맛모다

早春鳥疑

마시바니녀르멧벌어지어여가
고피기늦가오나북새疑心호는

軒墀曾不重剪伐欲無辭

此言階墀에不種
此竹言서人皆

伐之니라○軒墀에일즉重히너기다아니
호는나배허가물관오져호디문호는다

幸近幽人屋霜根結在茲

幽人은南自謂
라○幸히幽人의

지의맛가오니서리옛불
희미자어어그잇도다

木

古詩七首

律詩七首

古栢行

孔明廟前有老栢柯如青銅根如石夔州廟

孔明廟前一라○孔明人朝人알귀늘근앗남기잇는
니가지는프른구리외근고불회논돌근도

다霜皮溜雨四十圍黛色參天二千尺이리

이리거프리비저귀마은아는미오프른君臣已
비저하논헤다글니二千자히로다

與時際會樹木猶為人愛惜謂國備孔明

其人故其人以時로愛其樹也一라○남금과臣下과
글아時로다맞다글니十모도오히사

이리이리소랑글로雲來氣接巫峽長月出寒通

古栢行

十一

雪山白

구름이 오니氣運이 巫峽이 간다니
엇고 두리도 다니는 호묘 雪山이

하면 더스憶昨路繞錦亭東先主武侯同閱

宮

先主는 劉備오武侯는 孔明이라成都에
武侯는 廟附先主廟하니라○뒤주음

어길흔錦亭東덕그로버므러가물스랑崔
호니先主와武侯와기근宮이호더러라

崑枝榦郊原古窳窳丹青戶牖空

노루가지
와웃듬개

디헛두들개네루외니갑수
원철음은戶牖一뒤엇다라

落落盤踞雖得

地冥冥孤高多烈風

落落은高只이라○높
고불휘서려비목뒤흔

어터시나아오라하외로외扶持自是神明
오노파익은비르미하도다

力正直元因造化功

이타위자바유은스석로
神明의힘이로소나

正후호오본던로
化사功을음호도

大夏如傾要梁棟萬牛

回首丘山重

큰지비하다가기울면梁棟萬
길오위조오로이내기리니

萬의그어가노라머리롤도로
丘山고티그거이타기리다

不露文章

世已驚未辭前伐誰能送

비출나도다야나
하야도세개서하

아놀라나니버추물아다하디아
니컨아문누能히버혀보내리오苦心豈免

容蟻蟻香葉終經宿鸞為鳳

야이드러슈들免
야은은엇대가

하리오곳다운니픈스
鸞鳳자문다내리르다志士幽人莫怨嗟

天正事十一

卷七

古來材大難為用

言有材者一不得見用也

隱患사근은怨嗟함대말라네로오매
材黃이큰거슨비유이어려우니라

四松

四松初移時大抵三尺強

대소남기처음오래
되시를대대抵함

기석자남즉
능터니라

別來忽三歲離立如人長

매은드시세하니병으리
니사근위기리화근도다

會者根不拔莫

計枝凋傷

모로애불휘빠혀디아나호물보
리나가지의별드러허루호해디

다나
노라
古
幽色
韋
秀
發
疎
柯
亦
昂
歲

幽深호비
거率하秀

發하나 드문가지 所捕小藩籬本亦有隄防

終然振撥捐得愧千葉黃 振은 耆로 이니 撥

노양이라 籬本護松이러니 이제 허러 부러

本來 佐막 줄오이 잇더니 무대애 다 달이

공뵈그 敢為故林主黎庶猶未康 黎庶亂에

其居 | 니 况敢保松乎 아 오 구되 어 잇수 프

安티 避賊今始歸 春草滿空堂 實應元年

蜀亂하야 遊擇閣하다가 廣德二年 春에 再

蜀亂하야 遊擇閣하다가 廣德二年 春에 再

제아비 글도라오니 보릿프
覽物歎衰謝及

茲慰淒涼時物을 보고 슬픈歎다니

라노淸風爲我起洒面若微霜물고운이 나

々취但러니微微足以送老婆聊待僊蓋張

老妾노甫自請라僊蓋는謂松也라○

로소니기운兼퍼트
我生無根蒂配爾亦茫

茫無根蒂는有親伯無定言야不得與松○

이任아니를막하야有情且賦詩事迹兩可

忘此다아실시그를잊노니勿矜千載後

慄漭蟠穹蒼言千載之後에勿驕參天而長

云은 後에 漭 南의 及 見也 上이 라

病栢

有栢生崇岡童童狀車蓋狀남기노은의해

偃蹇龍虎姿圭當風雲會偃

은 高 兒 一 라 偃 蹇 言 龍 虎 姿 圭 當 風 雲 會

神朗依正直故老多再拜神明이正直호

에 比 德 正 德 言

들위드
릿도다
客從何鄉來
好立久吁怪
客은南
自謂라

나그네는이느
怪異히너기
吁嘆호물오래가니오
靜

求元精
理浩蕩難倚賴
言細思天理호니
善禍福之道一茫時

호야不可賴倚而明
之亂호미라
徵也
元精
理은
尋求

호요니浩蕩호야비
기아로이이럼도다

病橘

群橘少生意
雖多亦奚為
群橘木이
少를
此

惜哉結實小
酸澁如棠梨
棠子
有赤白

士詩七

二色 하늘이라 ○ 늘프다이름이 조이 **剖之盡**

蠹蟲采掇其宜 言不宜采掇也라 ○ 비

오애맛당호 **紛然不適口豈止存其皮** 의

슬히입서 거플 하름이 실뿐아 니라 이 베맛

다 몬 하 다 니 를 시 라 ○ 이 즈 러 이 이 베 맛 디

몬 하 니 엇 비 그 거 프 **蕭蕭半死葉未忍別故**

枝 蕭蕭는 風聲이라 ○ 비 르 애 불 이 노 반 만

다 **玄冬霜雪積况乃迴風吹** 지 오 레 서 리 와

부 르 이 부 낫 다 **嘗聞蓬萊殿羅列瀟湘姿** 湘

애有播田播洲_하니每歲入貢_하니_라도
일즉드로니蓬萊殿에備相_하엇_다엇_다도

다此物歲不稔王食失光輝_하는_다熟也_라도

食이나言播病不熟_하中無以供貢_하니王
食에無光也_라이다_라歲에_는다_아니

하_니님_은금_자다_아寇盜尙憑陵當君減膳時汝
에_는리_치업_도다

病是天意吾愁罪有司_하는_다必_當減膳自責_하시
必_當減膳自責_하시

나_니今_是播之病은_다天意에_는使_하吾君으로_는欲_減
膳에_는어_는는_다反_罪有_司之_不供也_라이다_라도_는盜賊

이_오히_려곤_외니_는님_은故_物膳_더르_실을_當
하_엇니_니내_病호_로이_하는_다이다_니나_는

有_司罪_주를_은憶_昔南海使_{奔騰}獻_{荔枝}百_馬
시_름하_노라

三寺

三

死山谷到今老舊悲借漢人南海一歇荔枝

南海入使臣이 돌이 나荔枝를 進獻하니 온

르 리 늘 근 넷 사 르 미 슬 낫 다

枯櫻

蜀門多櫻欄高者十八九極은音閏이 오欄

有樂無枝하 나 노 프 나 아 열 해 열 단 흡 곱 하

中其皮割剥甚雖象亦易朽그기 프 를 벗 켜

하 나 는 누徒布如雲葉青青歲寒後구 곱 7

이 더 낫 다

가져서 啾啾黃雀 啁側見寒 遂走 啁은 與啾 同

다오우르적시노黃雀 어덕 주리나니 念南

形影乾摧殘沒 藜莠 녀의 열 갈와 그르며 몬

러프어리에 비엣도다

枯栴

梗栴枯嶂 嶂 郷黨誌 莫記 栴은 音南 이니 嶂 似桑 亥고 子似杏

而酸 호나라 嶂은 高 貞이라 莫記호이 은 許를 모를식라오 梗栴이 어우리시 嶂호나

다 莫記호나라 不知 幾百歲 惓惓 無生意 아

漢志良工古昔少識者出涕淚

言此術이 難
枯하니猶可

為棟梁이 연아로 良匠을 未遇故로 識者
傷之니라 ○ 오히려 棟梁을 工로 稱거슬어 匠

고 匠하 놀해 을아 갈호든 匠도 다어 된 工匠
이 티 류利그 나 알사 류은 匠은 木를 내 木다

種榆水中央成長何容易截承金露盤

不自畏

漢武帝作承露盤하니 木이 易長이 연아로 難
貞이라 宜榆木이 易長이 연아로 難

承露盤하면 其質本柔하야 難以 撐柱
니 以 此 小入의 任 大事 而 必 至 顛 覆 하다 ○

드 름 남글 蟲가 은 木이 木나 木라 오이 木도
심 간아는 버히 金露盤은 바 木 연 보도 木기

니 스의 木로 木이
木아 니하리 아

域胡僧識 上句는 言欲移植帝宮이라도 不

非其地而中國人아 無識者古니 蓋傷之也

이라 〇 宮闕에 묻거 다 가 심구 묻 可히 얻디

못하리 로 소니 時에 西域 엇되 竟 곳 아 라 보 닷 다

柳邊

只道梅花發 那知柳亦新 오직 梅花 1 몇 나 라 나 리 디 위 어

느버드리 佐 卞 로 枝 枝 摠 到 地 葉 葉 自 開 春

외 요 못 알 리 오

가 지 아 다 다 차 해 나 르 락 紫 燕 時 翻 翼 發 鷗

不 露 身 고 리 는 모 어 나 디 아 니 가 닷 다 漢

南應老盡霸上遠愁人

漢南是南之所在韓州以南一自喻其老

方寸霸上是猶長安方寸憶故鄉也十斗漢南有別墅方寸謂其地也

霸上漢南有別墅方寸謂其地也

方寸謂其地也

霸上漢南有別墅方寸謂其地也

高栢

栢樹色冥冥江邊一盞青

栢樹八山北也

近根開藥園接葉製茅亭

洛景陰猶合微風

韻可聽

다尋常絶醉困卧此片時醒

생. 데. 7. 장. 술. 醉. 하. 야. 있. 비. 도. 이.

이. 기. 누. 으. 먼. 편. 片. 時. 에. 이. 었. 낫. 다.

嚴鄭公堦下新松得露字

弱質豈自負移根方甫瞻

바. 드. 라. 온. 옷. 드. 른. 었. 뒤. 지. 가. 취. 시. 리.

오. 음. 거. 심. 근. 불. 휘. 를. 뵈. 야. 하. 로. 더. 를. 보. 노. 라.

細聲聞玉帳疎翠近

珠簾

7. 는. 수. 리. 를. 玉. 帳. 에. 처. 드. 루. 리. 로. 소. 니. 첫. 권. 프. 론. 비. 존. 珠. 簾. 에. 깃. 갑. 모. 아. 未.

見紫煙集虛蒙清露霑

이. 는. 소. 남. 기. 크. 다. 문. 호. 온. 비. 르. 니. 라. 〇. 분.

근. 너. 모. 도. 온. 보. 디. 문. 하. 리. 로. 소. 니. 〇. 2. 고. 이. 스. 리. 지. 주. 를. 虛. 히. 보. 낫. 다.

何當一百

文歆蓋擁高簷

謂松이狀如優蓋也。라기

은蓋노끈집기
슬글씨리려노

憑韋少府班覓松樹子栽

落落出群非擇柳青青不朽豈楊梅

擇는음
라

이노從言松之非柳梅之比
라노파
우리내와다노
은擇柳
아니오피리
하야

의이아니호이
잇타揚梅리호
欲存老蓋千年意為覓霜根

數寸栽

霜根는言松根이耐霜也
라
근蓋이즈문
잇쓰들
노고
적
하야
시

리잇불회두이寸만호
栽種을為하야잇노라

憑何十一少府邕覓橙木數百栽

草堂塹西無樹林非子誰復見幽心草堂人

人너키나모수프리업스니그디야能開橙

木三年大興致溪邊十畝陰橙는音歌라甫

以橙로為薪하느니三年可燒니라十

畝陰은十畝에기모기보배라는논아리라

樹間

岑寂雙甘樹婆娑一院香岑寂은高靜也

도취를 가
利介라
幽陰成頗雜惡木翦還多
幽深
고늘히

이러는모섯
은남큰너
하도도
하도
枸杞固吾有雜

棲奈汝何
杞杞一名地骨皮
氣一名地骨皮
翦去惡木
不

蔽障故
木枝似妨
難木
下
枸杞
本
不

논가
호
方知不材者生長護

婆娑
바다
업시
호
노라

分類杜工部詩卷之十八



